
양치기 소년이라도 괜찮아요!

강 윤 진

요즘 마스크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나 ‘아동 인권침해’ 라는 말입니다. 뉴스에서 ‘정인이 사건’ 이 나올 때마다 온 나라에서 사람들이 슬퍼하고 화를 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다짐하고 서로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뉴스에서는 이름만 다른 정인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던 TV 뉴스에서도 친부모에게 폭력과 고문을 당하던 어린아이가 죽어 그 부모가 경찰에 잡혀가는 화면을 보며 ‘어떻게 저 작은 아이에게 저럴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학대를 받다 참지 못해 집에서 도망쳐 가게에 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한겨울에 얇은 옷만 입고 나와서 떨거나 배가 고파 가게에서 먹을 것을 훔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길을 지나던 시민들이나 편의점 사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서 위험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동생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엄마도 항상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내다 보면 크고 작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방학을 하고 하루는 엄마가 집에서 청소를 하시는 사이 저와 동생에게 놀이터에서 놀다 아이스크림을 사먹으라고 용돈을 주셨습니다. 놀기에도 너무 더운 날씨가 노는 등 마는 등 하다 집 앞 편의점에서 동생과 떠들며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가게 밖에서 울고 있는 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다섯 살 쯤으로 보이는 여자아이는 뭐가 서러운지 울기만 했습니다. 어라? 그런데 아이의 슬리퍼 한쪽이 없는 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학대받는 아이인 걸까?’, ‘아니, 아닐지도 몰라...’, ‘아냐, 슬리퍼가 한 짝 없잖아! 뉴스에서 봤던 것과 비슷해! 달래고 확인 해 봐야지.’

저와 동생은 그 아이에게 다가가 이름을 물어보고 길을 잃었는지, 엄마는

어디 계신지 물어보았지만 아이는 울기만 할 뿐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또 주변에 아이를 찾는 아주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동생에게 계속 말을 걸어주라고 한 다음 편의점으로 들어가 사장님에게 밖에 아이가 계속 울고 있다고, 학대받는 아이일지도 모르니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의점 사장님은 깜짝 놀라 아이를 데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 아이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전혀 말을 하지 않고 울기만 했기 때문에 신고를 해야겠다 하시던 사장님이 아이의 목 부분에 목걸이를 발견했는데, 미아방지 목걸이여서 부모님 전화번호가 있다고 했습니다.

연락이 된 여자아이의 엄마가 편의점으로 달려왔습니다. 편의점 우리가 커서 저 멀리서 슬리퍼 한 짝을 들고 급히 달려오는 아줌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놀이터에서 놀다가 엄마가 놀이터 밖으로 나가는 것 같아 따라간 아이가 길을 잃었고, 엄마는 아이를 찾다가 놀이터 밖에 신발이 떨어진 것을 보고 놀라서 여기저기 찾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와 동생은 너무 부끄럽고 민망하고, 또 학대하는 부모로 의심을 하여 신고까지 할 뻔했던 것이 알려지면 아줌마가 화를 내실까봐 무서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울먹거리며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학대아동인줄 알고 신고를 해달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슬리퍼가 없어서.. 한쪽만 없었어요..” 라고 동생도 열심히 설명했지요. 그런데 어른들은 아무도 화를 내시지 않았고 오히려 아이를 찾을 수 있었다며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전해 들으신 엄마도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하시며 안아주었습니다.

“다음에도 움츠러들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엔 손을 내밀어주자. 이런 건 한 번 두 번, 세 번 양치기 소년이 되어도 괜찮아.”

저는 그 후로 학대아동들의 기사를 찾아보고 관심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안전지킴이집’ 역할을 시작한다는 뉴스를 보며 괜히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기생각이나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없는 아이들의 인권이 특히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 양치기 소년이 되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알아보는 연습도 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합니다.